

“끝내줬다 나지완”

KIA '홀런 타자' 나지완
10월 7일 챔피언스 은퇴식

팬 100명 대상 사인회 열고
KIA 선수단 나지완의 배변
29년 새겨진 유니폼 입고 뛰어
2009년 KS 끝내기 홈런 재현

KIA 타이거즈의 '홀런 타자' 나지완이 10월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팬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는다.

KIA가 오는 10월 7일 KT와의 홈경기에서 'KIA의 홀런타자, 끝내주는 나지완'이라는 주제로 나지완의 은퇴식을 연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타이거즈 10번째 우승을 확정하는 끝내기 홈런을 날렸던 나지완의 활약을 떠올리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 전 감사 인사와 함께 이날 행사가 시작된다.

나지완은 오후 5시부터 사전 이벤트 접수자 100명을 대상으로 30분 동안 사인회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또 이날 경기장에 입장하는 팬들에게는 나지완 사인 포토카드(선착순 5000명)와 미디어 셀 아이패치(선착순 2900명)가 선물로 주어진다.

챔피언스 필드 중앙출입구엔 포효하는 나지완의 모습의 대형 통천으로 내걸리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나지완에게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된다.

그라운드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전광판을 통해 나지완의 활약상이 상영되고, 꽃다발 전달식이 이어진다. 꽃다발 전달이 끝나면 동판으로 특별 제작된 홈 플레이트와 유니폼 액자 등 기념품이 전달된다.

이날 경기의 시구·시타는 나지완의 가족이 맡는다. 아들 현준 군과 아내 양미희 씨가 시구와 시타를 맡고, 나지완이 포수 자리에 앉아 공을 받을 예정이다.

KIA 선수단은 나지완의 배변인 2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다.

동료와 후배 선수들이 하나가 돼 나지완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뛰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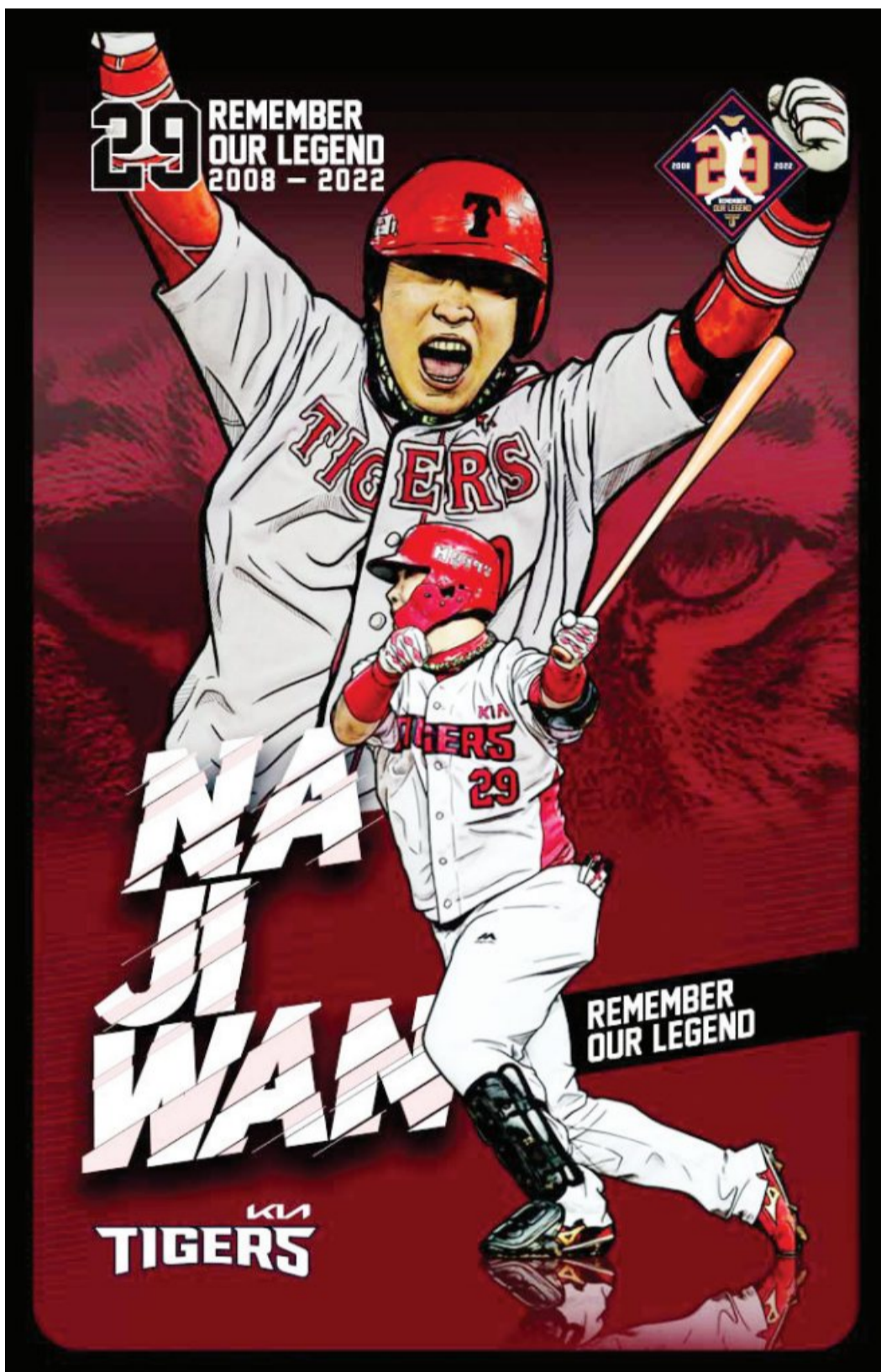
경기가 끝난 뒤 본격적인 은퇴식 행사가 진행된다.

나지완과 가족이 그라운드에 입장한 뒤, 아내 양미희 씨의 송별사, 나지완의 고별사가 이어진다.

이어 KBO 역사에 남은 '끝내기 홈런' 주인공 나지완의 마지막 타석 퍼포먼스가 펼쳐져 2009년의 환희를 재현하게 된다.

또 나지완은 외야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본인의 주 포지션이었던 좌익수 자리에 선다. 이때 나지완의 응원가 '나는 나비'의 원곡 가수 'YB(윤도현 밴드)'가 보내온 특별 영상이 전광판에 상영된다.

이날 입장권은 나지완의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세리머니 모습을 바탕으로 특별



나지완 은퇴식 포토카드

제작된다. 예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나지완의 '마지막 타석'에 눈길이 쏠린다. 나지완은 KBO 통산 15시즌 동안 1472경기에 출전해 1265안타(221홈런) 862타점 668득점 OPS 0.857를 기록했다. 특히 221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레전드' 김성환(207개)을 뛰어넘는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옆구리 부상으로 고전했던 나지완은 올 시즌에는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2008년 입단 후 처음 퓨처스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한 그는 개막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타석에는 서지 못했다.

4월 3일 LG와의 경기에서 2-3으로 뒤진 8회말

1사 1·2루에서 팬들의 환호 속에 대타로 이름을 올렸지만, 상대가 투수를 함덕주에서 정우영으로 교체하면서 나지완의 자리에 다시 대타 고종욱이 투입됐다.

이후 4월 5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고종욱을 응원하면서 덕아웃으로 들어간 나지완의 현역 마지막 모습이 됐다.

아직 선수 신분인 만큼 은퇴식에 앞서 KIA가 순위 싸움을 마무리한다면 나지완이 '선수'로서도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2일 KT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를 끝으로 은퇴 준비에 들어갔던 나지완은 '마지막 타석'을 위해 다시 방망이를 들고 개인 훈련에 돌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우승 전망

미국 CBS, 결승 영국에 2-1 승
H조 한국 1무 2패로 탈락 예상

11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BS는 최근 발표한 이번 월드컵 전망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와 결승에서 2-1로 이겨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매체는 올해 6월에 1차 전망을 했고, 이번에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2차 예상치를 내놨다. CBS 전망으로는 H조에 편성된 한국이 1무 2패로 탈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0-1로 지고, 가나와 2-2로 비긴 뒤 포르투갈에 0-1로 패해 조 최하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매체는 H조에서는 우루과이가 2승 1무, 포르투갈 1승 1무 1패로 16강에 진출하고 가나는 3무 승부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전망에서도 CBS는 한국이 1무 2패로 탈락한다고 예상했으며 다만 당시 결승 전망은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만나 브라질이 우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16강 진출국은 A조 네덜란드, 세네갈, B조 잉글랜드, 웨일스, C조 아르헨티나, 폴란드, D조 프랑스, 덴마크, E조 스페인, 독일, F조 크로아티아, 모로코, G조 브라질, 세르비아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중에서는 E조의 일본만 1승 2패로 조 3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A조 카타르, B조 이란, C조 사우디아라비아, D조 호주, H조 한국 모두 조 4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가 보도한 전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리버풀 캐피탈이 최근 발표한 올해 월드컵 전망에 따르면 역시 우승은 아르헨티나 차지가 되고, 한국은 조별리그 관문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특히 2014년 독일, 2018년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을 정확히 예측했다며 올해는 아르헨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국 및 우승국 전망		
미국 CBS가 9월 23일 발표한 월드컵 전망		
16강 진출국 전망		
A조	조 1위 네덜란드	조 2위 세네갈
B조	잉글랜드	웨일스
C조	아르헨티나	폴란드
D조	프랑스	덴마크
E조	스페인	독일
F조	크로아티아	모로코
G조	브라질	세르비아
H조	우루과이	포르투갈
한국, 1무2패(조 4위)로 16강 진출 실패 전망		
우승국 전망		
아르헨티나 2 : 1 독일		
자료: 미국 CBS 연립뉴스		

티나를 우승 후보로 지목했다.

이 회사가 32개 참가국의 16강 진출 확률을 제시한 것을 보면 한국은 H조에서 40%로 3위에 머물렀다. 포르투갈 69%, 우루과이 62%, 가나 28%로 집계됐다.

가장 치열한 16강 경쟁이 벌어질 조는 B조를 꼽았다. 잉글랜드가 68%로 가장 높고 미국(46%), 웨일스(45%), 이란(41%)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CBS의 전망과 비교해 B조에서 웨일스 대신 미국, C조는 폴란드 대신 멕시코, F조 모로코 대신 벨기에, G조 세르비아 대신 스위스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더 높게 쳐줬다.

결승 대진은 CBS와 똑같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만나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립뉴스

류현진 'MLB 서비스 타임' 10년 채웠다

현역 로스터 172일에 1년 인정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웠다.

류현진의 미국 에이전트인 보라스코퍼레이션은 27일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이 MLB 서비스 타임 10년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MLB는 현역 로스터에 등록된 기간이 172일을 채워야 서비스 타임 1년을 인정한다.

류현진은 지난 6월 팔꿈치 수술로 이번 시즌을 일찌감치 접었지만,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기간도 현역 로스터에 등재된 기간으로 산정돼 서비스 타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인 선수가 MLB에서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운 것은 박찬호(49)와 추신수(40·SSG 랜더

스)에 이어 세 번째다.

서비스 타임 10년을 채운 선수는 만 45세부터 매년 최소 약 6만8000달러(97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수령 시점을 만 62세로 조정하면 1년에 약 21만5000달러(3억68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KBO)를 거쳐 2013년 바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통산 175경기에 출전해 75승 45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6경기에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5.67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는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선발 맞대결을 벌여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 후 류현진은 왼쪽 팔꿈치에 미세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6월 19일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연립뉴스

광주FC 이정효 감독 “목표는 승점 90”

안산과 41R 3-0 승리 승점 81
“넘볼 수 없는 기록 남기겠다”

압도적인 우승에도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아직 배가 고프다.

‘챔피언’ 광주가 지난 26일 안산그리너스와 K리그2 41라운드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뒀다.

지난 21일 2위 FC 안양의 패배로 4경기를 남겨두고 최단기간 우승을 확정했던 광주는 우승 후 첫 경기에서는 K리그2 최다 승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다승은 타이거즈.

기존 K리그 최다승·최다승점 기록은 2017년 경남FC가 작성한 24승과 승점 79다. 광주는 이번 승리로 24승과 함께 승점 81을 기록했다.

후반 광주의 질주를 이끈 산드로가 전반 29분 선제골을 장식했다. 안영규가 중원에서 길게 엄지성에게 공을 보냈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이 문전으로 공을 넘겼고, 산드로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후반 42분 안산 송진규의 골대 불운에 1-0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9분 광주가 추가골을 장식했다.

박한빈이 마이키의 원발 크로스를 몸을 날려 헤더로 연결했고 시즌 3호골을 장식했다.

후반 36분 김경민의 부상 속 수문장으로 나선 이준이 티아고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냈다. 그리고 후반 43분 두현석이 뒤로 흐른 공을 잡아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시원한 슈팅을 선보였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K리그2 최다승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연패, 역전패 없이 시즌을 달리면서 ‘조기 우승’을 확정했지만 이정효 감독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K리그2 기록을 새로 썼다.

이 감독은 “우승 후 첫 경기라서 더 긴장했다. 결과가 안 좋아서 게시판이 뜨거워질까 봐 걱정했다. 선수들한테도 ‘안일하게 경기하면 지금까지 잘 가져왔는데 지탄받을 것 같다. 남은 3경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경기 중요하다고 하면 대로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안산전에 대한 긴장감을 이야기했다.

우승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선수들을 독려한 이 감독은 3-0의 승리에도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준 선수들이 대견스럽다. 선수들 지도하는 게 더 뿌듯한



‘조기 우승’을 이룬 광주FC가 지난 26일 안산그리너스와 K리그2 41라운드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둔 뒤 우승 현수막을 들고 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것 같다”며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다시 강조했다.

이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공간 활용’. 그는 “연습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압박할 때 상대가 나오는 만큼 뒤에 공간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후반에는 그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다. 상대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게 어렵다. 상대가 힘이 있을 때 플레이가 나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치르면서 기록을 만든 이 감독은 이 경기가 끝난 뒤 ‘승점 90’을 목표로 이야기했다. 남은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야 채울 수 있는 목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게 그의 마음이다.

이 감독은 “가능성이 일단 열렸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선수들과 이야기했다. 우리가

세 골을 넣어서 다득점도 1위(62득점)로 다시 올라섰다. 남은 세 경기 준비 잘해서 기록들을 계속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는 앞으로 대전(10월 2일), 경남(10월 9일), 충남아산(10월 15일)을 만난다. 광주가 승리와 승점을 더할 때마다 K리그2의 기록이 새로 쓰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